

하나님을 즐거워 하라

1.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2.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
3.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4. 주님의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

통권 _ 제 184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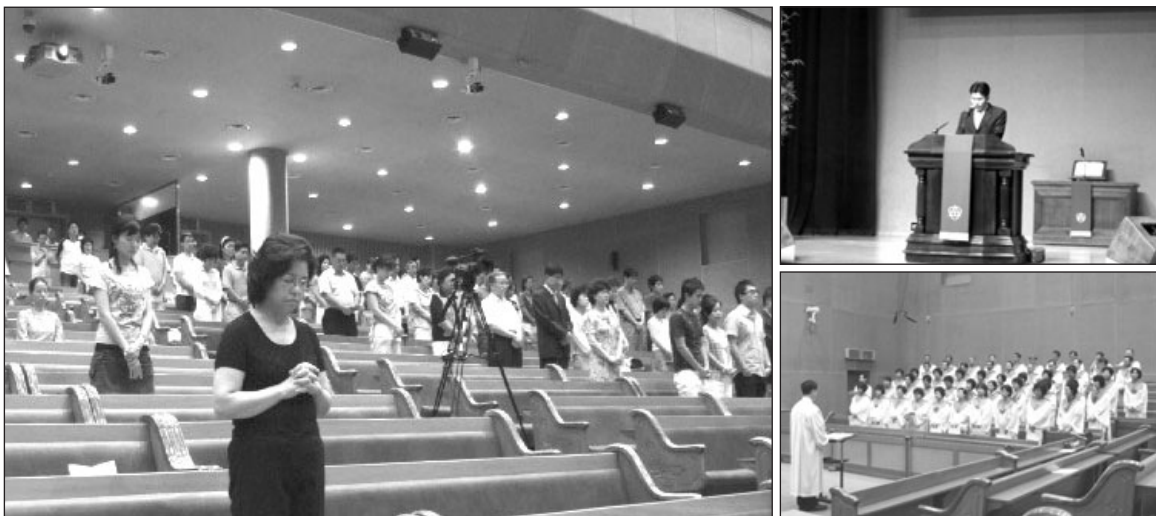
발행일 _ 2006년 9월 3일

함즐함울

www.pcltv.org

신설된 4부 첫 예배

3부예배의 인원을 분산, 혼잡을 피할 수 있기를 기대



지난 8월 27일 오후 1시 30분, 대예배실에서는 신설된 4부예배가 처음으로 드러졌다. 새롭게 구성된 예배위원들의 안내를 따라 예배실 안으로 들어온 250여 명의 성도들은 대표기도, 성경봉독, 말씀과 봉헌 등 1-3부 예배와 같은 순서의 예배에 참석했다.

이날 찬양대는 1부 호산나 찬양대가 담당했다. 당분간 4부예배는 1-3부 찬양대가 찬양순서를 맡아 봉사하게 된다. 그러나 9월 중으로 지휘자를 선임하고 찬양대원을 모집해서 정상적인 찬양대의 모습을 갖추어 4부예배의 찬양을 계속적으로 맡게 될 것이다.

같은 시간에 교회학교도 운영 중이다. 초등학교생은 1층 유년부실에서, 유아들은 1층 유아부실에서 통합으로 진행하고 있다.

4부 예배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3부 예배의 인원을 분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혼잡을 막기 위해 새로 신설된 예배이다. 그 목적에 부합하여 4부 예배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4부 예배로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4부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주 5일근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목양사업본부에서는 4부 예배를 위하여 안내, 주차, 예배, 찬양대, 교회학교를 위해 섬길 봉사자들을 찾고 있다.

2005년 5월부터 주일 오후 2시에 교회와 예배에 낮선 이웃을 위하여 드러졌던 '오늘' 예배는 2달여간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후 오는 11월 5일 (주일) 오후 6시로 옮겨 새롭게 예배 드리지게 된다.

꿈나무 사역팀 청소년 상담 세미나

일시: 2006년 9월 10일, 17일, 24일 오후 1:00-4:00

강사: 금명자 상담실장(한국청소년상담원)

대상: 꿈나무사역팀원, 교회학교교사, 관심 있는 사람

문의: 교유자권사(011-9591-0419)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1994년 시작한 주님의교회 호스피스사역에 부름 받은 선한사마리아인들이 질병으로 인해 지치고 힘든 환우와 가족들을 섬겨온지 13년이 되었다. 꺼져가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 오랜 시간 호스피스 사역팀에 많은 사랑의 마음들이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원동력 삼아 죽음 앞에 선 수 많은 영혼을 평안과 소망가운데 인도해 내고 있다.

현재 7개 병원과 4곳 시설(노인,장애인 시설등), 환우가 계신 가정을 찾아가 환우와 가족의 필요를

채우며 섬기고 있다. 이 일에 함께하기 위하여 마련한 호스피스 교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교육안내

일시: 2006년 9월 14일~ 11월 23일

(매주 목요일 1시~ 5시)

장소: 정동제일교회 사회교육관 이펜젤라홀 (시청역 덕수궁 뒤)

신청: 교회사무실(20명 선착순)

교육비: 8만원(주님의교회 등록교인은 4만원)

문의: 김양자 장로(017-250-0670)



캄보디아 선교보고 3/4면

의료선교보고
청소년 비전트립 1,2

예배의 현장 / 이희숙 권사

2면

방과후 학교

2면

그림으로 배우는 생활수화

4면

오늘부터 2학기 양육 개강 주차대란예상,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2학기 양육프로그램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적용되는 필수과목은 물론 교양과목을 포함한 선택과목들이 13주의 여정을 함께 출발한다.

참여인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양육클래스의 발전적인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그 이면에는 주차대란이라는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

강당 서쪽은 학교우선 주차구역으로 주중에는 정신여중고 교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학기 이곳에 무단으로 주차한 교회 차량으로 인해 교직원들과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 손님들이 학교 출입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교회가 난처한 처지에 놓이곤 했다. 또한 안전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주중, 특별히 화, 수, 목, 금 오전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 학교 내에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것은 학교와 교회가 연합하여 사역을 해나가는 주님의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예배의 현장 : 8월 20일 2부 대표기도

아바,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의 끝자락에서 작아지고 작아진 마음으로 주님의 광대하심과 아파하심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여름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집중폭우로 제방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고 도로가 끊겨 접근이 불가능한 마을들이 점점 차오르는 물의 공포 속에서 몇 밤을 지새워야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점점 조여오는 FTA 개방 압박,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느닷없는 전쟁, 어긋나기만 하는 정책들, 이러한 와중에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유한성을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의 크신 팔에 매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히 기도하며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죄에 둔감하고 마땅히 벌 바를 모르고 방황하며, 한탄과 불평이 마음에 가득 차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일은 내가 할 터이니, 너희는 나를 즐거워하라, 찬양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허탄한 일에 분주한 욕심을 부리고, 세상 것을 탐하여 분란을 일으키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형상대로 아버지의 심성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이 몸이 세상 욕심에 눈이 어두워 눈앞에 것만 보는 연약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

옵소서. 아버지의 후사를 이어갈 자녀답게 고쳐 주사 쓰임받기 원합니다.

해와 달과 사계를 운행하시며, 바람을 일으키고 잠재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곧 계절이 바뀌며 폭풍이 연이어 올 터인데, 홍수에 쓸대밭이 돼버린 마을이 아직 복구되지 못한 채 있습니다. 폭풍이 이 땅을 강타하기 전에 모두 소멸시켜 주옵소서. 찬바람이 불기 전에 따뜻한 보금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 금전적인 지원과 도움의 손길에 부족함이 없기 원합니다...이 땅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주님의교회를 세우시고 미쁘게 여기사, 사랑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전염시키고 초대교회 같은 주님의교회들을 번식시키라고 호소시키기도 하시며, 이 땅에 참그리스도교회의 모델이 되라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청소년사역에 집중하는 교회로 이 땅과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예수님 님 님은 차세대 전문 기독교인들을 양육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준비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행하라 하시는 데로 순종하며, 청소년들과 땀과 땀 흘리며 이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대행자를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전교인의 기도 가운데 이 일을 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는 한편 안타깝기도 하지만 주님의교회는 목회자와 임직자에게 임기가 있고, 그때마다 행하라 하시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버지의 때에 맞추어 예비하신 모든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듣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 시달리는 일에서 자유롭게 하사, 언제나 주님 가운데 모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각 구역과 교회학교와 각 부서가 수련회로 영육 간에 살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비한 체험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초등부에서부터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선교의 바람과 구제와 헌신의 불꽃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전하고 아픈 곳을 만지고 돌아오게 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뿌려진 씨앗이 육십 배 백 배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자 하는 선한 이 일에 동행하사 일일이 손끝으로 지시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희숙 권사

오늘 기도



죽어! 제가 하겠습니까.
제가 당신의 선한 도주가 되겠습니까!

방과후학교 여름특별활동

놀자, 과학아! - '샌프란시스코 과학놀이체험전'

방과후학교에서는 여름특별활동의 마지막 시간이었던 지난 토요일(19일),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놀자, 과학아! 샌프란시스코 과학놀이체험전'에 다녀왔다. 국립서울과학관 특별전시관에서 열리는 이 전시는 '자연의 신비와 만나자', '과학의 원리와 친구가 되자', '3차원 세상과 만나자', '빛으로 그림을 그려 보자' 등 총 5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전시에서는 엑스플로러토리움(Exploratorium)의 전시물 중 교육적 가치는 물론 관람객의 호응이 높은 60여 가지의 아이템이 전시됐다. 전시물들은 과학 원리를 이용한 놀이기구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래서 학생들은 전시물들을 직접 보고, 만지고, 사용해 보면서 어려웠던 과학의 이론적 원리를 재미있게 체험해 볼 수 있었다. 특히 공기의 회전을 이용한 '회오리치는 토네이도'와 금속판 위를 누르면 판 중앙의

구멍에서 안개기류가 밀려나오는 '안개도우넷', 자전거바퀴의 회전운동을 이용한 '자전거바퀴운전대' 등이 학생들에게 인기 있었다.



*엑스플로러토리움(Exploratorium) -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체험과학관



새로운 시작 준비

11월 5일부터 오후 6시로 옮겨져



8월 20일 “오늘” 예배는 오늘 연 5팀의 연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로 시작하여 게스트 트롬펫 1중주의 연주를 듣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설교를 맡은 이호 목사는 ‘은혜가 왕 노릇 하게’ (로마 1:17)라는 말씀을 전했다. 세상은 거전거를 타듯이 권력 앞에 숨을 죽이고 아래 사람을 무참히 밟아 인생을 빨리 달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햇빛과 달빛처럼

세상을 살아 기름등잔이나 양초가 되어 우리 주변을 밝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이 세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믿고 꿈과 미래를 창조하는 한 사람이 되자고 설교 했다. 2005년 5월 19일 주일부터 교회와 예배에 낮은 이웃을 위해 준비한 예배 “오늘”이 지난 8월 20일을 마지막으로 보다 완성된 예배를

위한 준비 기간에 들어갔다. 오늘 예배팀은 교회와 신앙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친근한 발을 내딛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기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늘’ 예배가 드려지던 시간에는 8월 27일부터 4부예배가 신설되어 진행되고 있고 ‘오늘’ 예배는 11월 첫째 주부터 저녁 6시로 시간을 옮기게 된다.

2006 여름/단기/선교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고 싶은 마음에 안타까웠다.”

의료선교부장 / 김학원 집사

필자는 금년 초 의료선교팀장을 맡게 되어, 여름의 단기 의료선교팀을 결성하여 캄보디아로 떠나야 하는 책임을 맡았다. 이번 팀은 지난 2001-2004년도 캄보디아(태국)에 이은 5번째의 팀이다. 전임 팀장들의 조언을 들으며, 금년 4월부터 팀 구성에 들어갔다. 먼저 의료팀과 지원팀으로 양분하여 의료진의 참가의사를 타진하는 한편 행정 지원팀의 구성계획도 함께 세워갔다. 6월 첫 주부터는 매주 일 의무실에서 준비기도회를 가졌다. 총 32명의 대원이 결정되었고 이중 17명은 진료인력이고, 15명은 지원인력이었다. 의료진으로부터는 필요한 약품을 신청받는 한편, 여러 제약회사로부터 후원도 받아야 했다. 우리의 사역지는 캄보디아 다게오주의 키리봉 병원으로 결정했다.

8월 14일 월요일 오전 6시 50분에 교회에 모여 인천공항으로 출발했다. 일행 32명이 이동해야 할 약품과 사역을 위한 물품은 이민국방으로 28개나 되었다. 오전 10시 40분 비행을 시작하여 베트남의 호치민시를 경유하여, 프놈펜에 도착한 것이 오후 7시 30분경, 이성민 선교사와 현지에서 출장 중인 이종일 집사일행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 우리에게 앞서 프놈펜에 도착하여 있던 단기선교 청년 2팀이 기다리고 있는 식당에 합류하여 함께 식사를 한 후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해 준 후 헤어졌다. 늦은 저녁을 마치고 준비한 버스로 다게오로 이동하였다. 이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우리일행은 극도로 피곤한 가운데 다게오 지역의 숙소에서 자정 무렵에 도착하였다. 2시간의 시차를 감안하면 새벽 2시인 셈이었다.

사역 첫째날, 아침 6시 30분에 기상. 7시에 인근 식당에서 현지식으로 식사 후 30분 거리의 키리봉 병원으로 출발하였다. 이날도 계속 비가 내렸다. 버스 안에서 정희성 목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현장에 도착하여 각 팀별로 짐을 풀며 사역을 준비하였다. 병원내의 3개 동을 빌려 진료실로 사용하였고, 병원 뜰에 대형 천막 2동을 설치하여, 우리 팀들의 일반사역을 준비하고 환자와 주민들이 기다리며 쉴 수 있도록 하였다. 통역 요원으로 이성민 선교사가 크리스찬 리더로 길러낸 프놈펜의 의과, 치과, 약학과 그리고 일반 대학생 14명이 각 팀별로 배치되었다. 우중에도 2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영상자료들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풍선을 나누어 주고, 즉석사진을 찍어 액자에 넣어주며, 미리 준비한 여러 가지 약제사리들을 선물해 주는 등의 각 팀 사역을 은혜가운데 마칠 수 있었다. 밤 11시경 사역지를 순회중인 담임목사가 숙소로 도착하였다.

사역 둘째 날, 날씨는 비교적 맑았다. 서둘러 아침

식사를 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안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병원 안으로 들어서며, 각자의 위치로 향하였고, 이후 모든 팀에서는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속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수행해 나갔다. 오전 중에는 담임목사와 단장 그리고 이성민 선교사가 이 병원의 입원환자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기도하였다. 예정된 점심식사시간도 늦어져 1시간 이상이 지나서야 오전 사역을 마칠 수 있었고, 오후에도 진료종료 시간을 2시간이나 늦추어야 했다.

진료팀은 무려 600명 가까운 환자를 돌보았다. 사진 봉사팀은 사진을 찍은 후 종일 프린터를 돌려도 다 인화하지 못한 사진들은 밤에 숙소에서 계속 인화해야만 했다. 홍보 영상을 상영하는 천막 안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토록 많이 준비한 선물도 곧 동이 났다. 풍선아트 봉사팀은 반복되는 작업으로 팔을 쓰기 힘들 정도였다. 오후에는 키리봉 인근의 개척교회를 방문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며, 성경, 찬송과 기념품을 선물하기도 하였다. 숙소로 이동하여 늦은 저녁 식사를 한 후에 각 팀별로 활동상황을 보고하며, 격려하는 평가회의 시간을 갖고, 숙소로 돌아와 길고 힘들었던 하루를 마감 하였다.

사역 셋째날 아침, 각자 짐을 꾸려 숙소를 나섰다. 식사 후 마지막 진료를 위해 병원에 들어서는데, 역시 많은 인파가 우리를 맞았다. 많은 사람들을 짧은 시간에 진료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만 앞서고 허둥댔다. 모든 팀들이 사역을 정리하고 우리들이 가지고 간 물품들은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현장에 남겨놓았다. 현지 병원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헤어지기 아쉬워하며 뭔가 더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민들과 작별하며 버스에 올랐다. 프놈펜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지난 3일간의 진료와 사역을 돌이켜 보았다. 우리 대원들 모두 열심히 일해 주었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과로와 긴 여정으로 탈진하는 대원도 생겼다. 현지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애쓰는 대원들, 그리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데 말이 통하지 않아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보았다. 아울러 순박하고 햇빛은 캄보디아 시골의 주민들을 보며 이들에게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등의 물질적인 혜택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교회의 대 캄보디아 프로젝트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그리고 많은 교우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역에 참여해 주기를 기도하였다.



중·고등부 연합 비전트립 1

캄보디아 비전트립 첫째날

5시간의 조금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캄보디아는 생각보다 많이 발전되어 있었다. 공항 갈지 않을 생김새의 꽤나 큰 공항이 있었다. 그곳에서 비자 받는 절차는 충격적이었다. 6~7명 되는 직원이 일일이 한 단계씩 말아서 수작업을 하더니, 입국 심사에서는 한 공무원이 한 번에 통과시켜주겠다고 팀을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려는 모

습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오후에는 보트 피플이 사는 톤레삽 호수를 방문했다. 우리나라 호수와는 달리 뿌연 흙탕물에서 밥을 짓고 목욕도 하고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곳에 적응하며 사는 사람들이 대단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불쌍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숙소는 생각보다 깨끗하고 좋아서 너무 기뻐했다. 숙소에서 밤에 가진 나눔의 시간에 목사님께서 ‘달란트 이야기’를 해주셨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하여 남긴 종들은 칭찬하시고 그냥

묻어 둔 종을 꾸짖으신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캄보디아의 실정과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들어보니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많은 달란트와 기회를 주셨고 또 우리는 받는 만큼 남기기 위해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생각했다. 캄보디아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게 일하여 남기는 인생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본 시간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김현정 학생(중등부)

Mission 함글함글, 표준어사용 시리즈

“우리가 표준말의 희망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리다(으)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르다(으)”



흔히 발음을 조금 틀리게 해도 상황에 따라 상대가 뜻을 알아채는 경우가 많아, 발음을 정확하게 내리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인 ‘들르다’와 ‘들리다’를 알아보겠습니다.

‘들리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소리를 감각 기관을 통해 알아차리다.”는 뜻의 ‘들다’의 파동형입니다.

어디서 음악 소리가 들린다, 밤새 천둥소리가 들렸는데 아침에는 ‘날이 맑게 개었다.’처럼 씁니다.

‘들르다’는 “지나는 길에 잠깐 들어가 머무르다.”는 뜻으로, 친구 집에 들르다, ‘퇴근하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렀다가 친구를 만났다.’처럼 씁니다.

중·고등부 연합 비전트립 2

“캄보디아, 죽음의 땅이 아닌 사랑의 땅으로, 회복의 땅으로 변하고 있다.”



지난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중·고등부 연합으로 캄보디아 비전트립을 다녀왔다. 학생 30명(중등부 17명/고등부 13명)과 이재욱 목사, 유성훈, 이세진 전도사, 고등부의 엄인호 집사(의료), 권주리 집사(총무), 조혜은 교사, 중등부의 홍기협, 정경혜 집사 등 총 38명이 3박5일 일정으로 캄보디아의 북서부의 시엠립 siem reap을 중심으로 시소폰 sisophone과 파이린pailin의 선교현장을 방문하는 비전트립이었다. 시엠립은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관광배후도시이며 파이린은 아직까지도 킬링필드로 악명 높은 크메르 르주의 지도자들이 은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1954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여 2000년 유엔의 노력으로 크메르 루즈 국제재판소 설치 합의가 있기까지 46년간 캄보디아는 그야말로 각종 내.외전에 시달리며 무려 170만 명이 숨진 ‘킬링필드’의 참혹한 현장이다. 그곳과 이리엔 우리 주님의교회 협력선교사이신 윤구행 목사님의 선교사역지가 있다. 7년 전 그곳 죽음의 땅에 선교사역의 소명으로 눈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목사님의 간증은 더 이상 캄보디아가 죽음의 땅이 아닌 사랑의 땅으로, 회복의 땅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고백이자 증언이었다.

첫째 날, 보트피플이 살고 있는 톤레삽tonle sap 호수를 방문하였다. 바다와 같은 호수, 그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구걸하는 아이들의 가난과 절망의 눈망울.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을 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둘째 날, 앙코르 와트 방문. 앙코르는 "도시"라는 말에서 유래되었고 "와트"는 사원의 의미란다. 즉 앙코르와트는 도시사원이란 뜻이며 도시와 사원의 기능을 하는 곳이다. 11세기 축성당시 인구가 100만 명으로 추정되는 거대도시의 구조가 하루아침에 폐허로 변하여 잊혀진 것은 아직도 불가사의라 한다. 신이 되고자 하였던 왕의 여러 흔적들이 폐허로 변하여 침묵 속에 묻혀있는 현장을 지나왔다.

셋째 날, 시소폰의 고아원 방문과 부근에 있는 몇 곳의 개척교회를 방문하였다. 시소폰의 고아원은 온갖 형태의 오랜 내전으로 버려진 고아들을 돌보는 곳이다. 어린이 교회를 중심으로 vision house와 고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고아들의 환한 웃음과 선한 모습,

교회생활 이모저모



영아부 예배장소 이동

주일 3부 예배시간에 만 24개월까지의 영아들이 예배를 드리는 영아부가 기존 지하1층 영아부실에서 1층 자모실로 예배장소를 이동한다.



유소년축구 2학기 개강

오늘부터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운동장에서는 유치부부터 중등부에 이르는 유소년 축구 클럽이 진행된다. 더불어 성도들의 주차협조를 부탁한다.



30컵 여름 수련회 사진전

1층 서쪽 복도 30컵 셀연합모임이 이루어지는 제3집회실 앞에는 30컵 여름 수련회의 사진이 전시되고 있다.



2층 수련실 도배 새단장

사무국은 지난 여름 방학 중에 2층 수련실을 도배하여 새롭게 단장했다. 2층 수련실은 정신여자중고등학교가 학교수련회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회는 소그룹모임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실만한물가/도서관 다시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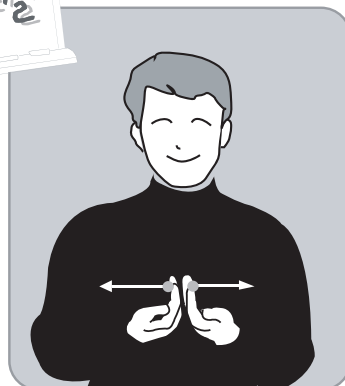
실만한 물가는 여름방학을 마치고 지난 8월 21일 문을 열었다. 도서관도 9월 5일부터 정상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경계의 눈빛이 아닌 사랑과 애정이 담긴 그들의 눈망울은 이미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훌쩍 뛰어넘어, 또래끼리 웃음으로, 춤으로, 찬양으로, 기도도, 같이 공을 차며, 상대의 손목에 우리는 하나라는 끈을 묶고 있었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과 우리는 하나의 끈으로 연결된 형제자매였다. 이곳의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캄보디아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사역자들의 영성을 위해 기도 해 달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담고 다음 목척지로 이동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홍기협 (중등1부 교사)

그림으로 배우는 생활수화



☝ 헤어지다[이별하다] (depart)
양손등을 맞댄 후,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인다.



☝ 반갑다[기쁘다, 즐겁다] (glad)
양손을 약간 구부려 가슴에 대고 엇갈리게 움직인다.